

추석 연휴 비상대응체계 구축·가동

임실군, 14~18일 종합상황실 운영 등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

임실군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 기간에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 민생경제 지원 및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근무자 122명을 배치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재해대책반, 물가대책상황반, 생활환경개선반, 상하수도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대책반, 가족방역대책상황실 총 8개 분야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가족들과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생활폐기물 배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과 18일에는 임실군 전역의 재활용,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터미널, 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는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군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휴 기간에는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임실군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 기간에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상황반을 운영하여 군민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 응급진료를 위해 보건 의료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하여 의료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 비상 진료를 실시하는 관내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임실군 보건 의료원(063-640-3110)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에 대한 중점 관리로 물가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관내 기업 및 단체와 함께하는 전통시

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명절맞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도 생계비 및 물품 지원과 함께 명절 음식 나눔으로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심 민 군수는 "임실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민 모두 걱정은 덜고 기쁨은 더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 구축·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금 기탁식

남원시, 온누리상품권·주거환경개선비 등 총 1800만원

남원시는 1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에서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후원받은 온누리상품권 5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비 1,300만원 등 총 1,800만원 후원금 기탁식을 가졌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돌봄, 자립, 교육, 건강·안전, 주거 등의 영역에서 복지사업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다양한 옹호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아동복지 전문 기관이다.

이번 후원금 중 온누리상품권은 통합사례관리 사업 대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등에서 50가정을 추천받아 한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1,300만원은 지붕 누수로 천장이 내려앉아 붕괴 우려가 있는 다문화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비로 사용될 계획이며,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3년간 294명의 어린이에게 5억5천만원의 후원을 하는 등 남원시 취약계층 아동들 위해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재단 본부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들을 모색하겠으며, 특히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남원시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아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청소년의 장 수상자 백인서 학생 선정

임실군이 내달 3일 2024 임실N치즈 축제 개막식에서 수여할 '제30회 임실군 청소년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

군은 현 국립순천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백인서 학생이 청소년의 장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백인서 학생은 임실군 신평면 출신으로 한국치즈과학고 시절 학생회장

을 맡으며 청소년 리더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또한, 임실군 청소년참여위원장으로 지역사회 여러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등 많은 귀감이 되어왔다.

심 민 군수는 "청소년의 장은 임실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타의 귀감이



다"고 말했다.

되는 청소년에게 수여하여 애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추석맞이 시장 장보기행사에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순창전통시장 활력 불어넣는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추석맞이 시장 장보기행사 열려

순창군 전통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열린 다채로운 행사로 활기를 띠었다.

11일 순창전통시장에서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추석맞이 시장 장보기 행사'가 동시에 개최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순창전통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과 전라북도가 후원하고 전북상인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약 300여 명의 관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순창전통시장 홍보와 함께 코미디언 황기순씨의 사회로 순창군민 노래자랑이 진행됐으며, 유지나, 강해연, 나혜진, 진현 등 초창기수의 축하공연과 상인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경품행사도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과 상인들이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울러, '추석맞이 시장 장보기행사'에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 사회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시장 곳곳을 누비며 추석 준비에 나섰다.

두 행사의 동시 개최로 순창전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평소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다녀갔고 전통시장 내 상점들의 매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들은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교통안전 재난대응 협약 체결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11일,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장, 제9지구대장이 참석해, 재난 및 교통안전 신속 대응과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아 진행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재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 협의, 정기적인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 대응 및 복구 활동시 인력 및 장비지원 등이다.

김승현 서장은 "재난과 교통안전을 위해 관련기관이 뜻을 모아 협약을 진행했으며, 남원소방서도 재난과 교통안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해 안전사고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문화행사 풍성

순창군립도서관이 오는 21일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도서관 광장과 다목적홀에서 펼친다고 밝혔다.

'펼쳐보자! 책도 품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축제는 올해의 다독자 선정을 비롯해 공연, 전시, 체험 등 10여 개의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가을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국내 최초 큐레이터인 조숙현 큐레이터와 연 주자들로 구성된 1m 클래식 앙상블 공연 △오치근 작가의 '그림여행'이라는 주제로 그림책 원화와 전시 △일곱가지색 중 팔리는 색의 표지를 가진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는 '컬러로 읽는 북큐레이션 코너도' 마련돼 있다.

이 외에도 행사장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체험부스, 도서 나눔, 두배로 대출 등을 운영해 독서의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 도서관 운영팀(063-650-5682, 5685)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남원시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규제혁신, 민원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의 성과를 창출하거나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왔으며, 각 부서에서 추천한 12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시민 직원들의 온라인 투표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보절면 이수규 주무관의 '휴집에서 새 희망이 피어나다'가 선정됐. 내용은 반파된 휴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새로운 거주공간을 지원한 내용으로 EBS 방송사채 지원사업을 신청

하여 후원금 2,523만원, 한국국도정보공사 사회공헌 무료 측량, 건축사무소 무료 설계등을 지원 받아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수행했다.

우수 사례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책홍보를 구현한 '2024 춘향제 프레스 데이+보이는 이동스튜디오'(홍보전산과 최가희 주무관) △민복사지 지역 복원 및 문화유산 역사성을 확보한 '민복사지 관동도로 폐도'(문화예술과 백옥중 주무관) △체류형 관광지로서 남원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은 '관광특화 브랜드 월광포차 개발·운영'(관광과 진흥훈 팀장) △상수관로 도면 새울 업데이트로 복합민원 회신기간 단축(상수도사업소 은원귀 팀장) △드론을 활용한 조사로 조사로 행정력 절감(원예산업과 운영팀 팀장)이 각각 선정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